

제17절 온정1리(溫井一里)[속명 : 양남아(陽南阿)]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온정2리와 접하고 그릿들이 있으며, 서쪽으로 백암산(白岩山)[1,004m]이 있고, 남쪽은 조금리(操琴里)와 연결(連接)하였으며, 북쪽은 백암온천(白岩溫泉) 지역이다. 마을회관은 1992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개척 연대(開拓年代)는 미상(未詳)이나, 개척 당시 백암산(白岩山) 남쪽에 산(山)이 수려(秀麗)하고 양지(陽地)바르며, 마을 앞에는 맑은 물이 사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고 농토(農土) 또한 비옥(肥沃)하다 하여 양남아(陽南阿)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온정리(溫井里)라 하였다. 온정1리의 자연부락인 온천리(溫泉里)는 신라(新羅) 시대에 한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온천수(溫泉水)를 발견하였는데, 온천지(溫泉地)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온천리(溫泉里)라 부른다. 1765년경 강원도 평해군 원서면 남아리에 속했으며, 1912년에 온천단지 일대는 온정리로, 양남아 지역은 남아리로 개명되었다. 1917년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로 통합된 뒤,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1리로 분리되었다. 백암산성지가 남아있다. 백암산성은 신라시대에 구대림, 황락의 두 장군이 축조했다고 전해진다.

3. 가구 분포

총 100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온양 방씨(溫陽方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구보(狗洑)

한 농부가 농토 개관을 위해 물길을 찾던 중 늙은 개 한 마리가 꼬리에 물을 묻혀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취를 따라 보(洑)를 설치하였으므로 구보(拘洑)라 부르며, 이 보를 이용해 몽리하는 들을 구보들(拘洑들)이라고 부른다.

2) 모로곡(毛老谷)

의병대장(義兵大將) 신돌석(申堧石) 장군이 일본군을 이 계곡으로 유인하여 전멸시켰으므로 일본군이 장군의 묘략(妙略)에 속았다고 하여 모로곡(毛老谷)이라 부른다.

3) 백암산(白巖山)

온정면 온정리와 영양군 수비면과 경계를 이루는 웅장한 신비의 영산(靈山)으로 산봉우리에 흰 바위를 이고 있으며, ‘뱀알’이라는 뜻을 지닌 산이다. 온정면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로 남쪽에는 깎은 듯한 절벽이 있다. 백암온천지구에서 백암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에서 흰 바위 쪽의 북동편 산록에서 와편 다수가 발견되어 백암사지로 추정된다. 백암산성의 유지는 양남아의 성곡마을에서 백암산 정상을 향해 1시간 30분 거리의 중턱에 있다. 울진지역의 고성 중 그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석성지이다.

4) 백암온천(白岩溫泉)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에 있는 온천이다. 고려 명종 때는 목조 욕탕으로, 조선시대 때는 석조 욕탕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13년 일본인이 최초의 현대식 일본 여관인 평해백암온천관(平海白巖溫泉館)을 신축하였다. 백암이란 이때의 일본식 여관의 상호로서 오늘날 백암온천관광특구의 명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백암온천은 1979년 12월 3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1997년 1월 18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백암온천 지구 내에는 관광호텔 2개소, 일반호텔 2개소, 여관 10개소, 콘도 1개소 그리고 기업·기관의 연수원 3개소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방사능·유황 복합 온천으로 심도 77~300m에서 솟는 천연 온천수이다. 평균 온도는 50℃ 정도이다. 인체에 유익한 다량의 광물질을 함유하여 자율신경계통 기능을 강화하고 심장 및 중풍, 피부 질환,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제18절 온정2리(溫井二里)[속명 : 음남아(陰南阿)]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산등(山嶺) 너머에 갑배마을과 접하고, 서쪽은 모릿시골과, 하천(河川)을 경계로 온정1리가 있으며, 남쪽은 조금리와 접하여 있고, 북쪽은 그릿들 소태2리와 인접하고 있다. 마을의 남동쪽에 기린봉을 뒤로 두르고 마을 앞에는 집앞들이 펼쳐있으며 남아실거랑이 흐른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형국